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귄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벽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일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10/16	10/23	10/30	11/6
헬로우십 다과	메나	테이블	테이블	-
어린이 돌봄	장경림, 신윤선 / 유세정, 박나경	이새롬, 이미혜 / 박영미, 나찬미	조혜연, 박주애 / 이남순, 조지영	최설아, 김윤진 / 노현주, 전해경
주차 봉사	조성갑/박범찬	유규하/황성현	유광현/홍영기	이호순/이형섭
예배 안내	IMAN (10월) & 바마코 (11월)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5가정(부부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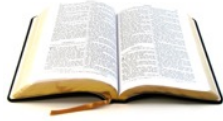
부부 목장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앤	조유희/희정	금 7:30pm
투르카나	이장춘/영주	미정
IMAN	나정우/찬미	금 7:30 pm
MK	김민수/미숙	금 7:30 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 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 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 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 am
스팍스	박진환/미희	주일 4p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금 8pm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형제 목장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목장		
사론	손국자	수 11 am
미얀마	김하운	목 10am
백향목	최영선	금 7 pm
아테네	이미영	월 10a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1-11)

균형 잡힌 성장	응답하는 예배	살롬 공동체	변혁 공동체
Pursuing Truth	Responding in Worship	Marked by Love	Living the Gospel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제자여 가십시오, 그러나 먼저 와서 제자가 되십시오
Go disciple, but first come and be a disciple

본문: 마태복음 28:18-20
설교: 존 사게리안

마태복음 28:18-20

- (18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까?

1. 기록하십시오.
2. 신실하십시오.
3. 진실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4. 서로 세워주도록 서로 돌보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함께 예수님에게 와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서로 도와주고, 그런 다음 세상에 나가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세상 모든 곳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 나라에서, 직장과 학교와 이웃에서, 선교와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의 소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선한 싸움입니다. 이 모든 싸움은 다른 사람의 내일을 위해 나의 오늘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무엇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쓰고 있습니까? 성도님은 누구를 위해 자신의 오늘을 쓰고 있습니까?

삶으로 말씀읽기:

1. 마태복음 28:18-20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Who is Jesus sending ME to?

제자란 무엇입니까? What is a disciple?
2. 마태복음 11:28-30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What does Jesus want ME to learn from Him?
3. 베드로전서 1:15-16을 읽으십시오.
이 요구가 적절한 것입니까? Is this a reasonable request?
4. 고린도전서 4:2을 읽으십시오.
내가 들은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trust that I have been given?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진리대로 따라 할 수 있습니까?
How can I be faithful with it?
5. 에베소서 4:15을 읽으십시오.
나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제대로 이루고 있습니까?
Do I have the right balance of TRUTH and LOVE?
6. 데살로니가전서 5:11을 읽으십시오.
나는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Am I really doing this?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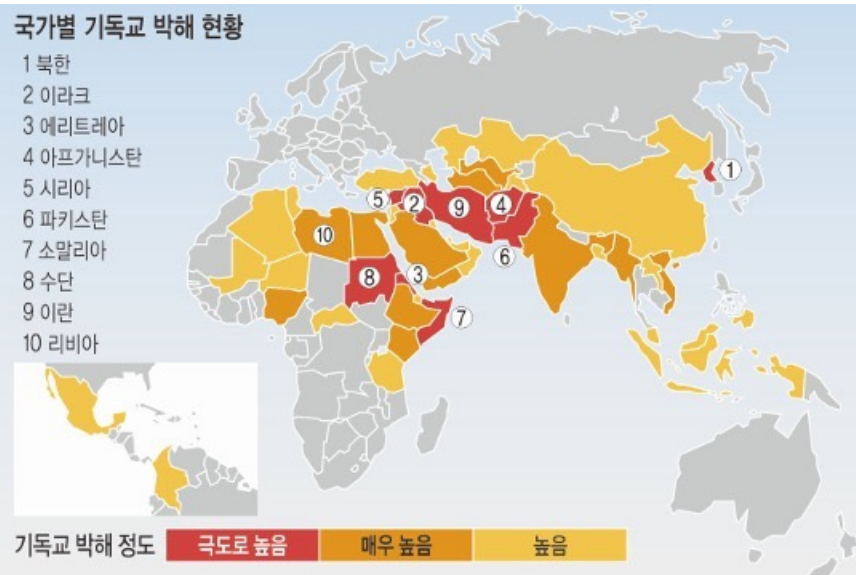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변혁사역팀

핍박받는 전 세계 크리스천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이하, 오픈도어) <https://www.opendoors.or.kr/> 는 매년, 국가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지난해 1억 명에서 올해는 1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박해로 연간 7,000여명이 희생됩니다. 공격을 받은 교회도 작년보다 약 두 배 많은 2,300여 교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해는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모든 종류의 적대적 경험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삶, 지역사회, 국가와 교회 생활의 범주에서 발생합니다.

북한은 14년째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순위 1위입니다. 오픈도어는 지난 1월 13일 '2016년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World Watch List, WWL)를 발표하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힙니다.

다음은 박해의 50개국 전체 순위입니다.

- 1.북한 2.이라크 3.이라크 4.에리트레아 5.아프가니스탄 6.수단 7.이란 8.파키스탄 9.에리트레아 10.나이지리아 11.몰디브 12.시리아 13.리비아 14.예멘 15.우즈베키스탄 16.베트남 17.중앙아프리카공화국 18.카타르 19.케냐 20.투르크메니스탄 21.인도 22.에티오피아 23.이집트 24.지부티 25.미얀마 26.팔레스타인 27.브루나이 28.라오스 29.중국 30.요르단 31.부탄 32.코모로 33.탄자니아 34.알제리 35.콜롬비아 36.튀니지 37.말레이시아 38.멕시코 39.오만 40.말리 41.터키 42.카자흐스탄 43.방글라데시 44.스리랑카 45.타지키스탄 46.아제르바이잔 47.인도네시아 48.모리타니아 49.아랍에미리트 50.쿠웨이트



베트남의 크리스천 박해 상황을 알려 드리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베트남 Vietnam



수도: 하노이
 인구: 약 9,430만 명
 주요종족: 킨족(베트남인) 외 54개 소수민족
 주요언어: 베트남어
 주요종교: 불교(60%), 가톨릭(7%), 까오다이교(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종교) 등
 1인당 국민소득: \$ 2,233

- 개신교: 1.5% (이 중 2/3는 북서 산악, 중부 고지대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 박해정도: 16위, 심함
- 주 박해요소: 공산주의와 반 기독교적 민족정서

베트남의 정식 국가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으로 현재 남아있는 다섯 개의 공산주의 국가 중 하나다. 2015년에 비해 박해 순위가 소폭 하락하였으나, 기독교에 대한 폭력 수위는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인 박해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독교가 베트남에 처음 들어온 것은 16세기이며, 19세기에 접어들어 베트남 사회에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개신교는 1911년, 기독교와 선교사 연합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함께 전파되었다. 1999년에 실시된 통계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의 80% 가량이 종교를 믿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인구의 50%는 불교의 율법과 의식에 따라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800만명 가량의 기독교 인구를 추산하는데 “전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World Christian Database)”를 이용하며, 기독교 인구 중 80% 이상이 카톨릭 신자이다. 약 150만명의 기독교인이 여러 유형의 개신교 교회에 속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베트남 복음주의 교회(Evangelical Church)로 통합되었다. 복음주의 교회는 2011년,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2년 동안, 공산 정권은 표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강하게 규제해 왔다.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검열 수위가 가장 높다. 몇몇 개신교 공동체의 새 신자로 개종한 사람들은 차별과 위협뿐 아닌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에 시달린다. 또한 종교활동으로 인해 투옥되어 감옥에 수감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성경을 인쇄할 수 없으며, 특히 많은 소수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인쇄 할 수 없다.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매우 부족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르



***개인적인 영역:**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대부분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심한 압력을 받게 된다. 엄격한 공산주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생활이 제한당하는 고통에도 시달린다. 이런 압력은 가족, 때로는 지방당국에 의해 자택에 감금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히 지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감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계속 전도하고 있다.



***가족적인 영역:** 개종한 사실이 발각되면, 이혼당할 위협에 처하거나, 자녀 양육권을 상실하거나, 세례식이나 장례식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지거나 아예 하지 못할 수 있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비기독교적인 교육을 강요당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는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거나 심지어 버림받을 수도 있다.

***지역사회적인 영역:**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서 믿음을 저버리라는 강한 압력을 받는다. 지역사회에서 심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료혜택을 포함한 사회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은 학급에서 뛰어난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학업평가에 낮은 등급을 받는다. 소수 인종의 교육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도 지방당국의 제재 때문에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생활과 사회활동에서도 차별당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보고도 있으며, 정부 당국이 고용주들에게 그리스도인 고용자를 해고시키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사례도 있다.

***국가적인 영역:**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베트남 국민은 국가 설립자인 호 치민(Ho Chi Minh)을 호 삼촌이라 부를 만큼 그를 추앙하며, 그밖에 다른 믿음은 모두 반국가적이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법령 92조로 알려진 종교법이 종교를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2016년에 개정될 예정이지만, 지금 시행되는 법보다 나아지리라고 기대되지는 않는다. 주민증에 있는 종교란에 기독교 개종자들은 기독교라고 기재하기 힘들며, 그런 수정을 시도한 사람도 결국에는 무교라고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대중매체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거나 그들에게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목사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삶이 안락하고 편하다는 식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거의 없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 실례로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계속 종신형을 받고 있다.

***교회적인 영역:** 교회는 집중적으로 감시 당하고 있으며, 정기 모임도 저지당하거나 방해 받고 있다. 기독교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기도 어렵고 제약이 심하다. 정부에 허가 받은 기독교 자료인데도 몰수되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한다. 특히 가톨릭교회에서는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는 것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회나 학교, 병원과 같은 넓은 토지를 큰 도시에 여러 곳 소유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을 주장하며 이것들을 강탈해 가려는 정부 당국과 충돌한 적이 있었다. 교육과정을 신청하고 허가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공식적으로 제재 당하지 않지만 감시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캠프나 훈련과정도 경찰에게 방해 받는다. 더 나아가, 등록된 교회는 모두 10월이면 다음 연도에 설교할 설교주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폭력:** 베트남의 핍박은 여전히 폭력적이다. 2014년 11월, 빈즈엉 성(BinhDhuong)에 있는 메노나이트(Mennonite) 교회가 불도저로 파괴되었고 꼰똥 성(Kon Tum)에 있는 몇몇 작은 그리스도인 가정 교회와 집들 역시 파괴되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고통도 당한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베트남 북부지방에서 장례식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그리스도인 노동자들이 복면한 남성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일이 있었다. 또한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정부가 자행한 극심한 핍박과 처형 때문에 최소 200명의 산지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떠나 베트남 중부지방으로 피신해야 했다.

자료출처: <https://www.opendoors.or.kr/>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2

목회칼럼

최규진 목사
Pastor for Korean Ministries

지난 며칠 거친 날씨로 인해 별로 없으셨는지요? 시속 50마일 이상의 바람이 매몰차게 불면서 나무들이 넘어지고, PGE에 의하면 4만 가구 이상이 정전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겪고보니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얼마전 미동부 지역과 중미 지역을 지나간 Hurricane Matthew의 경우, 바람이 시속 145마일까지 불었다니 그 파위와 위험성은 상상 이상으로 다가옵니다. 수재민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나 이번 강풍으로 인해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 안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다면, 함께 소식을 나누고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러니컬하지만, 삶의 어려운 시간들은 그간 관심이 적었던 관계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되게 만들어주고,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줄 때가 많은듯 합니다. 공동체 외부와의 관계에서든지, 혹은 공동체 내부의 관계에서든지 말입니다.

오늘 목회칼럼을 쓰게 된 계기는 ‘떡’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떡을 좋아해서, 한때는 ‘떡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적도 있습니다 (비록 요즘은 탄수화물양을 조절하고자, 다량은 절제합니다만). 주일 한인 헬로우십 때마다 떡 때문에 늘 감사했었고, 특별히 수년전 그 떡이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자세히 알게 된 이후로는 더욱 감사해왔습니다. 활동사역팀에서 당번과 방법을 조율 및 연락해주시고, 목사님들을 중심으로하여 목장별로 순번을 따라 떡을 매주 주문 및 주일 오전 일찍 픽업해주시고, 해당 다과안내 목장과 헬로우십 준비팀에서 매주 정성으로 점시에 준비하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체육관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십니다. 비용도 교회 예산에서 제작년까지 매주 \$80을, 작년에는 \$100을, 올해초부터는 \$120을 지원하였지만, 목장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늘 거기에 50% 정도를 더 보태어 섬겨와주셨습니다. 활동사역팀의 지체들과, 목사님들, 목원들의 귀한 사랑과 섬김에 주 안에서 함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위와 같은 과정은 헬로우십 다과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신 모습인데, 다음 주일 (10/23)부터 연말 (12/18)까지는 조금 ‘특별한’ 모습과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별함’이란 것은 친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에 늘 조심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감된 동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방법’을 고안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교회의 재정 현황입니다. 회계 연도를 마쳐감에 따라 한해의 재정을 잘 마무리함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일텐데, 그러기 위해서, 헌신된 헌금과 더불어 연말까지 간혹 지출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사료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한인부가 헬로우십 차원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볼 때, 예산에서 지출하는 식비를 줄여보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까지 헬로우십이 몇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보면 그리 큰 액수가 아닐수도 있겠지만,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액수 이상’의 의미있는 헌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 현황에 관하여는, 자세한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 오늘 (10/16) 저녁의 ‘온 교회 모임 (All Church Meeting)’의 참여를 권면드립니다.

재정 현황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것은 맞지만 단지 그 이유뿐만은 아닙니다. 그간 꽤 많은 분들께서, “나는 목장에 속하지 않아서 다과를 섬길 기회가 없는데, 기회를 만들어줄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해주셨고, 혹은 “떡 말고 참신한 다과는 없나요?”라고 여러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좋은 의견들이고,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해왔던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 (10/23)부터 연말 (12/18)까지는 (총8회), 각 헬로우십 테이블별로 각자 다과를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떡도 좋고, 도넛츠도 좋고, 과자도 좋고, 굴 한봉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내에서 자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이런 섬김의 기회를 갖는 것이 헬로우십 테이블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관계를 진실되게 하고, 주 안에서 가깝고 풍성히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도합니다.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보게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덕을 세우는 범주 내에서 이뤄지길 바랍니다.

커피와 물, 컵, 접시, 냅킨은 헬로우십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 같기에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테이블이 아니라 헬로우십 전체 다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활동사역팀장님이신 이청호 형제님과 충분히 미리 상의해주시면, 방법을 찾아보고, 전체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금씩은 그런 기회도 참 감사하고, 유익하고, 즐거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한 일로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은 아닐지 염려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결국은 번거로움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추석 물물교환 때,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으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더욱 다수의 섬김으로 나눠지는 우리의 그 ‘떡’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개인과 공동체로서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빛나는 과정이자 기회라 신뢰합니다.



빌리지 알리판

@ 한인부

1. 2016년 가을학기 성장 프로그램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 '믿음의 삶'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헬로우십을 마치고, 벽난로방에서 함께 식사후, Willamette A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돌봄: 이미혜 자매, 최정아 자매 @ 135번방)

2. 한인 헬로우십 테이블 재배정

지난 헬로우십에서 테이블 재배정이 있었습니다. 헬로우십 테이블은 공동체 내 다양한 지체들과의 사귄과 나눔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오늘 배정을 필요로 하시는 형제, 자매님께서는 18번 테이블로 오셔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청호 형제)

3. 새싹회 모임 (10/27)

새싹회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10월 27일 (목) 11:30am
- 장소: 벽난로방 (Fireside Room)

@ 온 교회

1. 오늘 대예배 (10/16)

오늘 대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John Sagherian입니다. John목사님은 레바논에 거주하시는 아르메니아인으로, 키프로스(Cyprus)에서 출생하셨고, 레바논에서 성장하셨습니다. 36년 동안 National Director로 Youth for Christ Lebanon을 섬기셨고, 이후 YFC/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에서 지역 대표를 맡으면서 레바논 뿐만 아니라 이집트, 요르단, 아랍 에미리트, 바레인의 YFC 사역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John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이십니다.

2. 온교회 회의 (All Church Meeting, 10/16(주일), 5-6:30pm)

앞으로 일년 동안의 교회 사역 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또한 장로 회장의 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로회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Dan Crawford 형제가 지난 6년동안 장로 중 한 사람으로 섬겨주셨기에 임기가 곧 만료 되지만, 담임목회자 청빙과정의 전환기이니만큼 장로회는 Dan 형제의 임기를 1년 연장하도록 온 성도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구약성경 (토라) 사본 두루마리 전시회 (10/23(주일) @ Columbia Rooms)

그동안 박물관에서만 볼수 있었던 토라 두루마리 (모세오경을 포함한 사본)를 10월 23일 예배 후 빌리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대략 100야드 정도의 길이로 몇 백년에 걸쳐 보존되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 주인은 홀로코스트 당시 살아남은 동유럽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인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어떻게 성경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빌리지 온교회 기도회 (Oratio, 10/26(수), 7pm @ 대예배당)

Oratio (오라티오)는 라틴어로 '대화' 혹은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민족과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분기별 빌리지 기도회 (Oratio)가 오는 10월 26일(수)에 있습니다. 당일은 한인부 수요일예배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5. 중고등부 학부모를 위한 성매매 & 포르노 관련 세미나 (10/29(토) @Willamette Rooms)

중고등부 학부모들이 성매매와 포르노에 관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계하고 맞서서(베드로전서 5:8), 자녀들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세미나입니다. 부디 참여하셔서 자녀 양육에 도움 받으시길 권드립니다.
- 일시: 10월 29일 (토) 9-11:30am
- 장소: Willamette Rooms
- 문의: Brian, brian.leak@gmail.com & Melissa, mlathrop04@hotmail.com

6. 포인세티아 (Poinsettia) 판매

10월 한달동안, 중고등부 2017년 여름 수양회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목적으로 6"와 8" 포인세티아를 판매합니다. 교회 로비에서 주문하신 후, 추수감사절 이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7. 중고등부 행사 안내: Where in the Square (10/28(금), 6-10pm, Gym에서 출발)

Washington Square에서 숨어있는 리더들 찾기 게임을 할 예정입니다. 좋아하는 파이, 스낵을 가져오세요. 참가비는 \$10입니다. (문의: Beth, bethe@vbconline.org)

8. 영적부모교실 (Child Dedication & Spiritual Parenting Class, 10/28(금), 29(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적 부모교실이 10/28(금), 10/29(토) 이틀에 걸쳐 개최됩니다. 특히 주일예배 시간에 아이 dedication을 계획하시는 부모는 반드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세 이하의 아이를 두신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이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10/20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일시: 10월 28일 (금) 6-9pm & 29일 (토) 10am-2pm
- 장소: Fellowship Hall
- 교재: Spiritual Parenting by Michelle Anthony (교재비 \$10)
- 문의: Sarah Meeds (Children's Ministry Director)

2016 현금 업데이트

9월 현금 참여자	511 (잠재 참여자 900+)
1-9월 예산	\$2,424,835
1-9월 현금	\$2,065,637
매월 목표 금액	\$269,426
10월 1-9일 현금	\$130,783

* 현금 참여자 (giving participant) 란?
현금을 내는 1인 또는 1가정을 뜻하며, 대학생 한 명을 1 현금 참여자,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가정을 1 현금 참여자, 부부를 1 현금 참여자로 간주합니다.

빌리지 대출	이자율
\$5,225,218	2.95%